

## 유아의 모국어 능력, 외국어 경험 정도와 상위언어 능력간의 관계\*

Relationships Among Language Ability, Foreig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and Metalinguistic Ability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한유미\*\*

Han, You Me

조복희\*\*\*

Cho, Bok Hee

### ABSTRACT

The 121 five-year-old Korean subjects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 3 groups based on their experience in learning a foreign language (English). A battery of tests was administered to measur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ability and the 3 metalinguistic domains of phonological, semantic, and syntactic awareness. Spoken language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mantic and syntactic awaren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metalinguistic domain varied with level of written language development. Phonological awareness was the only predictor of decoding. Syntactic awareness and phonological awareness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sentence comprehension. Metalinguistic ability was a better predictor of written language development than spoken language ability. Foreig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had an effect on syntactic awareness: low experience was superior to no experience, but high experience was not superior to low experience.

\* 본 논문은 1998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주거학과 강사

\*\*\*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주거학과 교수

## I. 서론

최근 서양에서는 상위언어 능력이 유아의 문자언어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외국어 학습 경험이나 훈련 프로그램 등 상위언어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상위언어란 언어의 내용보다 언어의 구조 및 형태를 그리고, 언어의 사용보다 언어에 대한 사고를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상위인지의 한 분야로 간주된다. 즉, 상위언어 능력은 음성언어를 사고의 대상으로 다루면서 음성언어의 구조적 측면을 조작하고 숙고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Tunmer & Bowey, 1984). 상위언어 능력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위언어 능력이 음성언어 능력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상위언어 능력이 문자언어 발달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먼저 상위언어 능력과 음성언어 능력간의 관계에 관해서는 상호작용 가설(interaction hypothesis)과 자율성 가설(autonomy hypothesis)이 있는데, 상호작용 가설은 음성언어의 습득을 따라 발달하게 되는 언어의 한 측면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상위언어 발달은 음성언어 발달의 영향을 받고, 음성언어 발달 역시 상위언어 발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두 살 짜리 아동도 "She want - she wants to go to sleep"과 같이 자신의 말실수를 모니터하고 수정하므로 나이든 아동뿐 아니라 어린 유아도 상위언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Chaney, 1992, 1994; Clark, 1978; Smith & Tager-Flusberg, 1982).

그러나 최근에는 상호작용 가설보다는 상위언어 능력과 음성언어 능력간의 구별을 강조하는 자율성 가설 쪽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She want - she wants to

go to sleep"과 같이 말실수를 모니터 하거나 수정하는 유형의 음성언어 통제는 고도의 숙고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진정한 상위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음성언어에 대한 자각 즉, 상위언어 능력을 요하지 않으며, 음성언어의 발달은 상위언어 발달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며,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Gombert, 1992; Tunmer & Bowey, 1984; Van Kleeck, 1982). 또한 자율성 가설의 입장에서 볼 때 상위언어 능력의 중요성은 문식성(literacy)의 습득, 외국어 학습,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 기능의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위언어 능력은 주로 초기 문자언어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Bialystock & Mitterer, 1987; Bowey, 1986; Chaney, 1992, 1994; Ely & McCabe, 1994; Hansen & Bowey, 1994; Stanovich et al, 1984, Warren-Leubecker & Carter, 1988). 이들에 따르면, 말하기나 듣기 등 음성언어 활동은 언어의 구조를 명백히 의식하지 않아도 행해질 수 있지만, 문자언어 활동은 부호가 어떻게 서로 나열되고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지식 즉, 명시적인 자각을 요구한다(Webster, 1986). 예를 들어, 새로운 단어를 소리내 읽는데 필요한 '소리-철자간 대응관계'를 학습하기 위해서 유아는 말로 행해진 단어가 소리와 음절 단위로 분리될 수 있으며(분절), 단어는 상이한 소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합성)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Chaney, 1992, 1994). 이와 같이 볼 때 상위언어 능력은 초기 문자언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흔히 서양에서는 유아기부터 운율(rhyme)을 연습시키며, "A fat cat sat on the

mat"와 같이 운율이 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초기 읽기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일종의 상위언어 능력인 운율에 대한 자각이 읽기를 학습할 때 중요한 기능적 단위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Bryant, 1993; Goswami, 1994). 그러나 서구의 연구결과를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는 언어학적으로 국어와 영어는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어는 영어 등 로마자 표기체와 달리 글자(음절)가 시각적으로 독립적인 단위로서 두드러져 지각되므로 운율의 비중이 영어의 경우와 다를 수 있다(윤혜경, 1997).

둘째는 상위언어 능력은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Tunmer와 Bowey (1984)에 의하면, 상위언어 능력은 음운자각, 단어자각, 통사자각, 그리고 화용자각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중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공숙자, 1995; Chaney, 1992, 1994; Han, 1996; Smith & Tager-Flusberg, 1982; Warren-Leubecker & Carter, 1988)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것은 주로 운율 인식 능력으로 측정하는 음운자각, 단어와 지시물의 관계가 임의적임을 인식하는 단어자각, 문장의 문법성 여부와 의미론적 진위를 판단하는 등 문장에 대해 숙고하는 통사자각 영역이다. 이와 같이 상위언어 능력은 음운자각, 단어자각, 통사자각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된 개념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한 가지 상위언어 영역만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언어 각 영역들이 문자언어 발달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기 힘들다(Warren-Leubecker & Carter, 1988).

또한 상위언어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은 문자언어 발달 수준 즉, 문자해독이나 문장이해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해독과 같은 초기 문자언어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상위언어 영역은

이해력 중심의 이후의 문자언어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영역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연구 내에 여러 가지 상위언어 영역(음운, 단어, 통사자각)과 문자언어 발달 수준(문자해독, 문장이해)을 함께 포함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상위언어 능력은 모국어 발달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인식될 수 있지만, 상위언어 능력은 외국어 학습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중언어(bilingualism)에 관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상위언어 능력은 외국어 학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분야이다. 과거에는 이중언어사용을 일종의 핸디캡으로 여겼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긍정적 조건으로 보는 관점으로 바뀌었다. 즉, 모국어만을 습득할 때에는 언어의 형식적 측면에 의식적인 주의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두 가지 부호(code)를 구별하기 위해 언어의 형식적 측면에 의식적으로 주의집중을 해야 하므로 상위언어 발달이 촉진된다는 것이다(Galambos & Goldin-Meadow, 1990).

그러나 외국어 학습이 상위언어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 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다. 먼저, 역치가설(threshold hypothesis)을 제창한 Cummins(1984)는 외국어 학습은 외국어와 모국어가 모두 유창할 때에만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중언어 사용은 두 언어 모두 능숙한 아동의 경우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언어 모두 능숙하지 못한 아동에게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Ricciardelli, 1992).

이에 비해 Diaz와 Klingert(1991)는 외국어 학습의 효과는 오히려 외국어의 접촉 수준이 매우 낮을 때 뚜렷이 나타난다는 신역치 가설(new threshold hypothesis)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두

언어의 유창성이 증가한다고 이중언어 사용의 긍정적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중언어 사용이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외국어의 초기 학습 단계에서의 경험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역치 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어의 어휘 수준이 열댓개 정도이고 간단한 인사말이나 “이것은 OO이다” 정도의 대화만 할 정도로 외국어가 능숙하기 전에도 상위언어 발달은 촉진될 수 있다(Yelland et al., 1993).

역치 가설과 신역치 가설 중 어떤 것이 옳은가를 밝히는 것은 조기 외국어 교육 붐이 일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에 매우 중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역치 가설이 사실이라면 조기 외국어 교육은 조기유학이나 어학연수 또는 몰입학습(immersion program) 등 매우 집중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신역치 가설이 맞다면, 유아의 외국어 학습 경험은 적어도 상위언어 능력 등 인지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므로 저급한 수준에서라도 유아들이 외국어에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상위언어 능력은 초기 문자언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의 외국어 학습의 효과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음운자각, 단어자각, 통사자각 등 상위언어 각 영역을 국어의 특성에 맞게 척도를 제작하여 5세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상위언어 능력과 음성언어 능력 중 어느 것이 문자언어 발달에 더 중요한가

를 비교하고, 상위언어 능력과 문자언어 능력간의 관계를 상위언어 각 영역(음운자각, 단어자각, 통사자각)과 문자언어 발달의 각 수준(문자해독, 문장이해)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상위언어 능력과 음성언어 능력의 관련성 역시 상위언어 각 영역별로 살펴보고, 유아의 외국어 경험 정도가 상위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위언어 능력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 읽기 준비도나 초기 읽기 교재 제작 등 초기 문자지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유아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찬반논쟁에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여 바람직한 외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구체적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은 모국어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1: 상위언어 각 영역은 음성언어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2: 상위언어 각 영역은 문자언어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3: 상위언어와 음성언어 중 어느 것이 문자언어 발달에 더 중요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은 외국어 학습경험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계층과 지역을 안배하여 유의 표집한 서울시 소재 유치원 5세 아동 ( $M=66.5$  개월,  $SD=3.45$ ) 121명으로 남아가 61명, 여아가 60명이다. 외국어 경험과 상위언어 능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문제 3의 경우에는 유아가 언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영어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일주일에 몇 번 몇 시간을 배우고 있는지, 영어 교육 비용, 유아의 영어 구사 정도 등에 관해 어머니가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유아의 외국어 경험 정도를 분류하여 집단 분류가 애매한 12명을 제외한 109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외국어 경험이 전혀 없는 유아”(집단 1)는 27명이었다. 외국어 경험이 있는 82명의 유아는 외국어 경험 정도에 따라 다시 두 집단으로 나뉘어 지는데, “외국어 경험이 약간 있는 집단”(집단 2)은 유치원이나 학원 등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지는 않았으나 어머니를 통해 비디오나 책으로 영어를 접하여 단어 몇 개 정도 아는 유아들로서 55명이었다. “외국어 경험이 많은 집단”(집단 3)은 학원 등을 통해 외국어를 정규적으로 학습 받아 영어로 간단한 영어 문장은 할 수 있는 유아들로서 모두 27명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상위언어 능력의 측정

##### (1) 음운자각

음운자각의 측정 형식은 자극어(예, cat)를 들은 후 동의어(kitten)와 동운어(예, hat)중에서 동운어(예, hat)를 고르도록 하는 Ricciardelli(1993)의 Form-Meaning Judgement task를 따랐다. 그

러나 영어와 국어의 언어학적 차이로 Ricciardelli(1993)의 각 문항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예, 고양이와 모자는 동운어가 아님) 각 문항에 사용된 단어는 국어의 특성과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선정하였다. 자극어 문항(예, 머리)과 동운어 문항(예, 서리)은 3세 6개월-6세 5개월 아동의 음성변별 능력에 대한 권경안(1981)의 연구에 의거하여 구성하였다. 동의어 즉, 오답 문항(예, 얼굴)은 이정섭, 권경안과 정인실(1980)의 3세 3개월 - 5세 6개월 아동의 사용 어휘목록에서 구하였다. 즉, 각 문항에 사용된 단어들은 모두 만 5세인 본 연구대상 유아들에게 친숙한 것으로 선정하였으며, 음운자각 척도는 1개의 연습 문항 외에 12개의 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단어자각

단어자각 척도는 Ricciardelli(1993)의 Word Renaming task을 번역하여 그대로 사용했다. 연구자가 먼저 연습 문항으로 “지금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게임을 할거야.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달’을 해라고 ‘해’를 ‘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한다. 아동의 답이 옳던 그르던 연구자는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 이름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준 후 본 문항으로 들어간다. 예를 들면, 연구자는 아동에게 ‘사람’과 ‘물고기’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기로 했다고 설명한 후 물고기 그림을 보여 주면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지?” 질문하여 유아가 사물의 새로운 이름을 수용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 “사람은 집에서 살까 물에서 살까?” 등의 질문을 통해 사물의 이름이 바뀌어도 사물의 속성은 바뀌지 않음을 이해하는지를 알아본다.

이와 같이 단어자각 척도는 총 6개의 과제(개고양이, 사람-물고기, 트럭-책상, 책-배개, 거북이-비행기)에 대해 사물의 새로운 이름을 수용하는 문항 5개와 사물의 이름의 교환이 사물의 속성의 교환이 아님을 이해하는 문항 6개 등 총 12 문항으로 구성된다.

### (3) 통사자각

통사론적으로 볼 때 문장은 문법과 의미가 모두 맞는 문장(GM), 문법은 틀리지만 의미가 맞는 문장(gM), 문법은 맞지만 의미가 틀리는 문장(Gm) 그리고 문법과 의미가 모두 틀리는 문장(gm)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준거로 제작된 Ricciardelli(1993)의 Grammar Judgments task가 본 연구의 통사자각 척도의 모델로 사용되었다. Ricciardelli(1993)의 검사에서 아동은 각 문장을 제시받고, 그 문장의 내용적 진위와 관계없이 문법적 정확성만을 판단하도록 요청 받는다. 즉, GM이나 Gm 문항은 옳은 문장이고, gM 문항은 틀린 문장이 된다. 따라서 아동은 내용적으로는 거짓이라도 문법이 맞으면 옳은 문장(예, Simon is eating bike)으로, 의미는 통하더라도 문법이 맞지 않으면 틀린 문장(예, The teacher a book read)으로 대답해야 한다.

Ricciardelli(1993)의 척도 중 Gm 문장은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예, 'Simon is eating bike' 와 '철수는 자전거를 먹고 있다' 는 모두 내용이 거짓인 문장) gM 문장은 영어와 국어의 문법의 차이로 인해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예, 한국어에는 복수형 동사가 없으므로 'They is sitting down' 를 비문법적인 국어 문장으로 옮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gM 문항은 우리나라 아동의 구문 판단 능력을 검사한 선행연구(공숙자, 1995; 이인섭, 1986)에서 문장을 발췌하여 수정, 제작하였다.

한편 예비조사 결과 Ricciardelli(1993)의 척도

에서처럼 Gm 문장 하나와 gM 문장 하나로 구성된 한 쌍의 연습문항만을 실시했을 때 검사의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 척도에는 아동이 지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한 쌍의 연습 문항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통사자각 척도는 연습 문항외에 2문항의 GM 문장과 각기 6개의 Gm 문장과 gM 문장 등 14개의 본문항으로 구성되지만 GM 문장은 중립자극으로서 채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총점은 12점이다.

이와 같이 제작된 음운자각, 단어자각, 통사자각 등 상위언어 영역의 척도는 국어학 전공자의 자문을 거친 뒤 아동학 전공자 4인에게서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고, 반분신뢰도로 구한 신뢰도 계수는 .68에서 .87로 나타났다.

## 2) 음성언어 능력의 측정

본 연구에서 음성언어 능력은 국어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뜻하며, 이영석, 구학봉, 노명완, 김승훈, 차미정과 고승자(1993)가 표준화한 계몽 학습준비도 검사의 언어생활 대영역 중 듣기 소영역과 말하기 소영역으로 측정됐다. 듣기 소영역과 말하기 소영역이 각기 5문항으로 음성언어 능력의 총점은 10점이며,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66, 문항변별도는 .38이다.

## 3) 문자언어 능력의 측정

본 연구에서 문자언어는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상 쓰기는 제외하고 읽기 능력에 초점을 두며, 문자해독 수준과 문장이해 수준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 (1) 문자해독

문자해독은 문수백과 변창진(1997)이 개발한 한국판 K-ABC의 습득도 검사 중 문자해독 하위

검사로 측정했다. 이 검사는 아동에게 문자나 단어를 보여주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게 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인 5세아용은 총 30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 (2) 문장이해

문장이해는 문수백과 변창진(1997)이 개발한 한국판 K-ABC의 습득도 검사 중 문장이해 하위검사로 측정됐다. 총 25개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척도의 장점은 아동으로 하여금 읽은 문장의 의미에 관해 제스처나 신체적 동작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읽기 이해력을 직접 측정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반드시 문장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기침을 하세요"라는 문장을 유창하게 읽고도 "김치..."하면서 사진 찍는 포즈를 하거나 "김치를 먹으래요"라고 설명하는 유아들이 적지 않았다. 이 검사에서는 유아가 단순히 "기침을 하세요"라고 소리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기침하는 시늉을 해 보여야만 정답을 맞춘 것이 된다.

한편 이 검사는 원래 7세 이상의 아동용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예비조사 결과 상당수의 5세 유아들이 별 무리 없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검사의 저자로부터 이 검사는 우리 나라 아동보다 읽기 발달이 늦은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을 국어로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대상 연령층을 그대로 옮겨 온 것이기 때문에 척도점수를 환산하지 않고 원점수만을 사용한다면 우리 나라 5세 아동에게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응답을 받아 본 연구의 척도로 선택했다.

## 3. 연구절차

1차 예비조사 결과 대부분의 유아용 단어 읽기 척도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운자각 척도의 일부 문항이 수정되고 통사자각 척도의 연습문항의 보강되었다. 2차 예비조사에서는 상위언어 세 영역의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문수백과 변창진(1997)의 문자해독 척도로 읽기검사를 교체 실시하고, 문장이해 척도를 새로이 포함시켰다. 3차 예비조사 결과 문수백과 변창진(1997)의 검사는 비교적 고른 점수대를 나타냄을 발견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본 조사는 1998년 4월 10일에서 4월 27일까지 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으로 3명의 연구보조자들이 각 유치원을 방문하여 실시했다. 채점자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보조자들은 검사 훈련을 받고 검사 장면을 1회 관찰한 뒤, 각기 주검사자로서 검사에 들어갔다. 집단검사가 가능한 음성언어 능력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검사는 개별검사로 시행됐다. 담임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 어머니용 질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특성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t-test, Oneway ANOVA, Pearson 적률상관계수, Duncan test, Multiple Regression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으로 수행됐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의 일반적 경향

〈표 1〉 상위언어 영역별 수행 경향

N=121

영역	내용	문항수	M(SD)	수행률(%)
음운자각	운율인식	12	6.95(2.74)	57.92
단어자각		12	6.29(2.74)	52.41
	이름 교환	5	4.23(1.36)	84.60
	속성 보존	7	2.06(2.04)	29.43
통사자각		12	6.25(2.67)	52.08
	Gm형 문장	6	3.13(2.11)	52.17
	gM형 문장	6	3.12(1.56)	52.00
상위언어 총계		36	19.35(6.08)	53.75

〈표 1〉과 같이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의 일반적 양상을 살펴보면 총 36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19.35(SD=6.08)로서 53.8%의 수행률을 보이고 있었다. 상위언어 각 영역별 평균 점수와 수행률은 음운자각 영역 6.95(57.92%), 단어자각 영역 6.29(52.4%), 통사자각 영역이 6.11(52.08)으로 음운자각 영역의 점수가 다른 영역보다 약간 높았으나 세 영역의 수행률이 모두 우연에 의한 확률인 50% 이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음운자각을 제외한, 단어자각과 통사자각 영역은 각기 두가지 차원으로 구성돼 있다. 단어자각 영역은 사물의 새로운 이름을 수용할 수 있는가하는 이름교환 문항(5개)과 이름이 바뀌어도 속성은 바뀌지 않음을 이해하는 속성보존 문항(7개)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두 차원은 문항수가 서로 달라 평균의 비교가 무의미하므로 수행률만을 비교하면, 이름교환 문항의 수행률은 85%로 천장효과를 보였음에 비해, 속

성보존 문항의 수행률은 30%도 안됐다. 즉, 5세 유아는 사물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지만, 이름이 바뀌어도 사물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는 단어를 그것이 지칭하는 사물에 통합된 뿐으로 믿으므로 사물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 사물의 속성도 따라서 바뀌는 것으로 믿는다는 Vygotsky(1962)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지만(속성보존), 일부는 차이가 있다(이름교환).

통사자각 역시 문법은 맞고 의미가 틀리는 Gm형 문항과 문법은 틀리고 의미가 맞는 gM형 문항 등 두 차원으로 나뉜다. Gm 문장형 문항들과 gM형 문항들의 평균 점수는 각기 6.13과 6.12로 거의 같았다. 그러므로 유아가 Gm형 문장을 옳다고 승인하는 능력과 gM형 문장을 틀리다고 판단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2.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과 모국어 능력간의 관계

### 1)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과 음성언어 능력간의 관계

〈표 1〉에 제시 되어 있듯 전체적인 상위언어

능력은 음성언어 능력과 .29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p < .01$ ), 상위언어 각 영역별로 나누어 볼 때에는 음성언어 능력은 단어자각 영역( $r = .30, p < .001$ )과 통사자각 영역( $r = .24, p < .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음운자각 영역과는 관계가 없었다( $r = .09, n.s.$ ).

〈표 2〉 상위언어 영역과 음성언어 능력간의 상관관계

N = 121

	음운자각	단어자각	통사자각	상위언어 총점
음성언어	.09	.30***	.24**	.29**

\*\*  $p < .01$ , \*\*\*  $p < .001$

### 2) 상위언어 능력과 문자언어 능력간의 관계

〈표 3〉의 좌측과 같이 문자해독을 종속변수로 하고 음운, 단어, 통사 자각 등의 상위언어 영역을 독립변수로 중회귀분석한 결과 음운자각 영역의  $\beta$ 값이 .3607로 유의한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p < .001$ ). 이는 음운자각 능력이 뛰어난 유아일수록 문자해독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어자각 영역( $\beta = .0310, n.s.$ )과 통사자각 영역( $\beta = .1041, n.s.$ ) 등의 독립변수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표 3〉의 우측과 같이 문장이해를 종속변수로 중회귀분석을 했을 때에는 음운자각 뿐 아니라 통사자각 영역도 유의한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음운자각 영역의  $\beta$ 값은 .2782( $p < .01$ ), 통사자각 영역의  $\beta$ 값은 .2770( $p < .01$ )으로 이 둘 두 변수가 문장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사했다. 즉, 음운자각 능력과 통사자각 능력이 발달한 유아일수록 문장이해력도 높았다. 단어자각 영역은  $\beta$ 값이 .1449( $n.s.$ )로 나타나 문자해독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표 3〉 상위언어 영역별로 본 문자언어 능력의 중회귀분석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문자 해독		문장 이해	
	B	$\beta$	B	$\beta$
음운자각 영역	1.2001	.3607***	.5004	.2782**
단어자각 영역	.1025	.0310	.2578	.1449
통사자각 영역	.3526	.1041	.5056	.2770**
Constant		6.9382		-1.6386
R <sup>2</sup>		.1721		.2712

\*\*  $p < .01$ , \*\*\*  $p < .001$

음운, 단어, 통사자각 등 상위언어 영역들이 함께 결합했을 때에는 문자해독 변량의 17%( $R^2 = .1721$ )와 문장이해 변량의 27%( $R^2 = .2712$ )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는 상위언어 능력은 문장이해보다 문자해독 단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상위언어 능력과 음성언어 능력이 문자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위언어 능력과 음성언어 능력 중 어떤 것이 문자언어 능력에 더 중요한가를 보기 위해 <표 4>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채택하고, 회귀과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고자 Durbin-Watson 계수(d)를 구한 결과 문자해독과 문장이해 모두의 경우에서 2에 근접하여 잔차간의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4>의 좌측은 문자해독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이다. 순서 A는 문자해독이 종속변수인 회귀식에 상위언어 점수를 먼저 포함시킨 후 음성언어 점수를 투입했을 때 추가적인 설명력은 3%( $\Delta R^2 = .0343$ , n.s.)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증가분은 통계적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순서 B에서는 회귀식에 음성언어 점수를 먼저 넣은 다음 상위언어 점수를 포함시켰

는데, 이때에는 설명력이 9%( $\Delta R^2 = .0891$ ,  $p < .001$ ) 증가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이는 음성언어 능력의 영향력과 별도로 상위언어 능력은 문자해독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음성언어 능력은 상위언어 능력의 영향력과 독립적으로 문장이해의 변량을 설명하지 못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표 4>의 우측은 문장이해를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순서 A와 같이 회귀식에 상위언어 점수를 먼저 포함시킨 후 음성언어 점수를 투입했을 때 설명력은 7% 증가한데 그쳤으며( $\Delta R^2 = .0698$ , n.s.), 이러한 증가분은 통계적 의미가 없었다. 순서 B에서는 회귀식에 음성언어 점수를 먼저 넣은 다음 상위언어 점수를 포함시킨 결과 추가적 설명력이 17%( $\Delta R^2 = .1724$ ,  $p < .001$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있었다. 즉, 문자해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장이해의 경우에도, 상위언어 능력은 음성언어 능력과 별개로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나 음성언어 능력은 상위언어 능력의 영향을 통제하면 문자언어 능력의 변량을 설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상위언어 능력이 음성언어 능력보다 문자언어 및 문장이해 모두에 대한 더 좋은 예측인자라고 할 수 있다.

<표 4> 상위언어능력과 음성언어능력에 따른 문자언어 능력의 위계적 회귀분석

순서	종속 변수			
	문자 해독		문장 이해	
	R	$\Delta R^2$	R	$\Delta R^2$
A. 1. 상위언어 능력	.3672	.1347***	.5130	.2631***
2. 언어 능력	.4111	.0343	.5770	.0698
B. 1. 언어 능력	.2823	.0799**	.4006	.1605***
2. 상위언어 능력	.4111	.0891***	.5770	.1721***
Durbin-Watson	2.0175		1.9956	

\*\*  $p < .01$ , \*\*\*  $p < .001$

### 3. 유아의 외국어 학습경험이 상위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 학습이 전혀 없는 집단(집단1)과 약간 있는 집단(집단2) 그리고 정기적으로 외국어 학습을 받는 집단(집단3)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표 5>와 같이 일원변량분석을 한 결과 유아의 외국어 학습 경험은 상위언어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90, p<.05$ ). 상위언어 총점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집단 1은 17.33으로 집단 2( $M= 20.00$ )나 집단 3( $M=20.96$ )보다 낮았지만, 집단 2와 집단 3은 비슷한 점수를 보였다.

<표 5> 외국어 학습 경험에 따른 상위언어 영역의 평균과 변량분석

집단	사례수	M(SD)	F	Duncan	
음운자각 영역	집단1	27	6.40(2.58)	1.17	
	집단2	55	6.98(2.88)		
	집단3	27	7.56(2.68)		
단어자각 영역	집단1	27	5.78(2.04)	.91	
	집단2	55	6.51(3.02)		
	집단3	27	6.70(2.66)		
통사자각 영역	집단1	27	5.14(2.41)	3.14*	A
	집단2	55	6.51(2.73)		B
	집단3	27	6.70(2.43)		B
상위언어 총계	집단1	27	17.33(4.75)	2.90*	A
	집단2	55	20.00(6.24)		AB
	집단3	27	20.96(5.94)		B

\*  $p<.05$

그러나 외국어 학습 경험이 상위언어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외국어 학습이 모든 상위언어 영역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 기보다는 통사자각 영역에 주로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운, 단어, 통사자각 영역 모두에서 집단 1이 가장 낮은 점수를, 집단 3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원변량 분석 결과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통사자각 영역에서만 유의했다.

외국어 학습에 의해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통사자각 영역( $F=3.14, p<.05$ )을 추후 검증으로 Duncan test를 한 결과 통사자각 능력

의 집단차는 집단 1과 집단 2간의 차이와 집단 1과 집단 3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집단 2와 집단 3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통사자각 영역에서 볼 때 외국어 학습의 효과는 외국어를 전혀 학습하지 않은 집단과 약간 학습한 집단간에 있었고, 외국어를 약간 학습한 집단과 정기적으로 학습한 집단간에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외국어 학습의 효과는 오히려 외국어의 접촉 수준이 매우 낮을 때 뚜렷이 나타난다는 신역치 가설(Diaz와 Klingler, 1991)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음운자각, 단어자각, 통사자각 등 상위언어 각 영역을 국어의 특성에 맞게 척도를 제작하여 5세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상위언어 능력과 음성언어 능력 중 어느 것이 문자언어 발달에 더 중요한가를 비교하고, 상위언어 능력과 문자언어 능력간의 관계를 상위언어 각 영역(음운자각, 단어자각, 통사자각)과 문자언어 발달의 각 수준(문자해독, 문장이해)에 따라 분석했다. 아울러 상위언어 능력과 음성언어 능력의 관련성 역시 상위언어 각 영역별로 살펴 보고, 유아의 외국어 경험 정도가 상위언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결론 및 제언을 내리던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5세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음운자각, 단어자각, 통사자각 등 모든 상위언어 영역의 수행률이 50% 이상으로 유아는 부분적으로나마 상위언어 능력을 갖고 있었다. 세 영역 중 음운자각 영역이 가장 높은 수행률을 보였으며, 단어자각 영역의 경우 유아는 사물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것(이름교환 차원)에는 별 어려움이 없지만(85%), 이름이 바뀌어도 사물의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속성보존 차원)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이는 유아는 단어를 그것이 지칭하는 사물에 통합된 뿐으로 믿으므로 사물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 사물의 속성도 따라서 바뀌는 것으로 믿는다는 Vygotsky(1962)의 주장과 일부 일치하지만(속성보존) 일부는 차이가 있다(이름교환).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사물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름교환)보다 사물의 이름이 바뀌

어도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속성보존)이 더 어렵고 더 늦게 발달하는 단계임을 시사한다. 통사자각 측면에서 유아는 Gm문장을 옳다고 승인하는 것과 gM문장을 틀리다고 판단하는 능력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난이도의 측면에서 Gm문장과 gM문장간에는 위계적 관계가 없다고 한 Bialystock(1986)의 보고와 일치한다.

둘째, 음성언어 능력이 뛰어난 유아는 전체적으로 상위언어 능력도 우수하지만, 모든 상위언어 영역에서 우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음성언어 능력은 단어자각이나 통사자각 능력과는 상관이 있었지만, 운율을 자각하는 능력과는 무관했다. 본 연구에서 말하기와 듣기로 측정한 음성언어 능력과 상위언어 각 영역들간의 상관계수는 .09에서 .30 사이에 있으며, 이는 PPVT로 음성언어 능력을 잴 외국의 선행연구들(Bowey & Patel, 1988; Chaney, 1992, 1994; Smith & Tager-Flusberg, 1982)보다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사용한 언어검사의 종류가 다른데서 비롯됐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음성언어 척도와 비슷한 Metropolitan Readiness test의 Language subtest와 PPVT를 함께 사용한 Warren- Leubecker와 Carter(1988)의 연구에서도 PPVT 수용어휘 점수와 MRT의 언어 점수는 각기 음운, 단어, 통사자각과의 상관관계가 대동소이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에서 음성언어 능력이 상위언어 능력과 상관관계가 낮고, 특히 음운자각 영역과는 관계가 없게 나타난 것은 측정도구의 차이에서만 비롯됐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국어의 특성에서 비롯됐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단어와 지시물간의 임의적 관계를 인식하는 단어자각이나 문장의 의미에 대한 관심을 억제하고

문법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통사자각과 음성언어 능력간의 관계는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나 한국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음운자각과 음성언어 능력간의 관계는 사용하는 언어권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어는 영어만큼 운율이 현저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나 듣기 등 음성언어 활동은 잘하면서도 운율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말하기나 듣기 등 음성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도 영어권보다 일찍 시작되는 읽기 학습의 경험에 의해서 음운자각 능력이 생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음성언어 능력이 일부 상위언어 영역과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일부 상위언어 영역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상위언어 능력이 언어에 대한 전반적 태도(global orientation to language) 또는 단일한 기능이 아니라 고도로 다양화된 지식과 기능의 집합체라는 증거로도 해석할 수 있다(Bialystock, 1986). 나아가 이는 상위언어 발달과 음성언어 발달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든 상호작용 가설(Chaney, 1992, 1994; Clark, 1978; Smith & Tager-Flusberg, 1982)이나 상위언어 발달과 음성언어 발달은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는 자율성 가설(Gombert, 1992; Hakes, 1980; Tunmer & Bowey, 1984; Van Kleeck, 1982)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 상위언어 각 영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상위언어 능력이 문자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상위언어 각 영역과 문자언어 발달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음운자각은 문자해독과 문장이해 모두에, 그리고 통사자각은 문장이해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단어자각은 문자해독과 문장이해 모두에서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음운자각 영역이 초기 문자

발달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영어권에서 발견된 결과(Chaney, 1992, 1994; Warren-Leubecke & Carter, 1988)와 일치한다. 이는 문자언어 발달에 있어서의 상위언어 능력의 역할은 비단 영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구조가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즉, 국어에서도 운율이 읽기의 중요한 기능적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문자언어 발달에 있어서 음운자각의 중요성이 확인됐으므로 다음 과제는 상위언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상위언어 능력은 가르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Bowey, 1990). 이미 서양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게 시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기본틀은 빌려 올 수는 있지만, 영어와 국어의 언어학적 차이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예컨대 영어에서는 cat, mat, hat 등으로 운율을 연습시키고, A fat cat sat on the mat라는 문장으로 읽기 학습을 시작하는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들은 운율이 아니다. 따라서 먼저 아동학자와 언어학자간의 협력을 통해 공, 콩, 중, 총 등과 같이 유아의 수준에 적절한 국어의 운율 목록을 제작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정이나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이를 이용한 언어놀이를 통해 유아에게 다양한 운율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음운자각 능력을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촉진된 음운자각 능력으로 인해 유아가 글로 쓰여진 '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고, '중', '콩' 등의 단어를 읽을 때 이를 적용할 수 있다면, 그는 읽기를 더 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읽기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자모법이나 음절법 외에도 운율중심의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또한 음운자각은 소리와 철자간의 대응관계에 따라

단어를 소리내 읽어야 하는 문자해독 단계뿐 아니라 문장이해에 기초한 높은 수준의 읽기 단계에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음운자각은 문자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상위기능이며 이후의 읽기 발달 단계(문장이해)에서는 자동화되어 유아의 의식 밖으로 나가게 되지만, 읽기의 전학습 과정을 통해 단어를 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유추된다(Chaney, 1992, 1994).

한편 Bowey와 Patel(1988)의 연구에서 통사자각은 문장이해보다 문자해독과 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를 상위언어 능력은 문자해독 과정에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문장이해 과정에는 덜 관여하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음운자각은 문자해독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통사자각은 문장이해에는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장이해에 필요한 여러 기능들, 즉 단어의 의미를 처리하고, 문장내의 단어들을 통합하고, 문장간의 의미를 통합하는 것들은 일상적인 듣기 활동에 필요한 과정과 유사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owey와 Patel(1988)의 연구와 반대로, 본 연구에서 통사자각 영역은 문자해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문장이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사자각이 발달한 유아는 문법적 지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이해력을 점검할 수 있으므로 이해력 중심의 읽기를 잘 할 수 있다는 Chaney(1992, 1994)의 설명과 일치한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해독 중심으로 처음 읽기 학습을 시작할 때에는 음운자각 위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후 이해력 중심의 읽기를 학습할 때에는 음운자각뿐 아니라 통사자각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음성언어 능력보다 상위언어 능력이 문자언어 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음성언어 능력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해도 상위언어 능력은 문자해독과 문장이해에 대해 각기 9%와 17%의 추가적인 변량을 설명했다. 반면 상위언어 능력의 영향의 통제하면 음성언어 능력은 문자해독과 문장이해에 대한 설명력이 사라졌다. 이는 음성언어 능력보다 상위언어 능력이 문자언어 발달에 더 좋은 예측인자라는 Stanovich 등(1984)이나 Warren-Leubecker와 Carter(1988)의 연구와 일치하지만 Bowey와 Patel(1988)의 결과와는 상반된다. 음성언어 능력의 영향을 통제하면, 상위언어 능력은 초기 읽기 능력의 변량에 대한 독자적인 설명력이 사라진다는 Bowey와 Patel(1988)의 결과와는 본 연구 결과간의 차이는 측정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말하기와 듣기 능력에 초점을 두어 언어 능력을 측정한 반면, Bowey와 Patel(1988)은 PPVT-R로 수용어휘력을 측정하고 TOLD-P의 Sentence Imitation 검사를 사용했는데, TOLD-P의 Sentence Imitation 검사에는 언어유창성을 재는 심리언어적인 측면 외에 언어적 작동 기억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Hansen & Bowey, 1994). 또한 본 연구는 음운, 단어, 통사자각 세 영역을 상위언어 능력으로 측정 한 반면, Bowey와 Patel(1988)의 연구에는 음운자각과 통사자각 영역만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가능한 해석은 다변량 분석에서 '연구대상:검사'의 비율이 작으면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 비율이 본 연구에서는 60:1인데 비해 Bowey와 Patel(1988)의 연구에서는 14:1 정도로 Bowey와 Patel(1988)의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의 수에 비해 연구대상의 수(60명)가 작았다는 것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Bowey, 1990).

다섯째, 외국어 학습 경험은 일부 상위언어 영역 즉, 통사자각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외국어 학습이 모국어 습득을 방해한다는 우려 때문에 외국어 학습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외국어를 학습하게 되면 언어감각이 날카롭게 되어 (상위언어 능력이 발달되어) 모국어를 더욱 세련되고 풍요롭게 구사하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규적인 외국어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어 학습 경험이 많지 않고, 외국어 수준이 아주 저급했을 때에도 통사자각 능력이 촉진됐기 때문이다. 즉, 외국어를 정규적으로 학습 받는 것이나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 간헐적으로 학습 받는 것이나 유아의 상위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마찬가지로였다. 이는 외국어 어휘수준이 열댓개일 정도로 외국어가 능숙하기 이전에도 상위언어 발달이 촉진됐다는 Yelland, Pollard와 Mercuri(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결과로 미루어 보아 외국어와 모국어가 모두 능통할 때에만 외국어 학습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역치가설(Bialystock, 1988; Cummins, 1984; Edwards & Christophersen, 1988; Ricciardelli, 1992)보다는 외국어 능력이 역치 수준 이하일 때 외국어 학습이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역치가설(Diaz & Klinger, 1991)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현실적 측면에서도 유아의 외국어 학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우리말 외에도 외국어라는 것이 있다는 것과 외국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감지하는 정도로 외국어 학습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상위언어 능력은 약간의 외국어 학습 경험에 의해서도 촉진될 수 있으며, 초기 문자언어 발달에 있어 음성언어 능력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언어 능력은 언어에 대한 전반

적인 태도나 단일한 기능이 아니라, 고도로 다양화된 지식과 기능의 집합체(Bialystock, 1986)로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음운자각, 단어자각, 통사자각 등 상위언어 각 영역들은 서로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음성언어 능력이나 외국어 학습 그리고 문자언어 능력과의 관계는 각 영역마다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상위언어 능력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상위언어 능력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 우리 나라 교육실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서울의 유치원의 5세 유아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상위언어 발달 경향을 보여 주지 못하며, 연구결과를 5세 아동 전체에게 일반화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여 연령별 상위언어 발달추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둘째, 상위언어 발달에 관한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상위언어 영역을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공숙자, 1995; Chaney, 1992, 1994; Han, 1996; Smith & Tanger-Flusberg, 1982; Warren-Leubecker & Carter, 1988)에서 흔히 다루어 온 음운자각, 단어자각, 통사자각 영역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외에도 화용자각 영역을 포함시킨다면 더욱 의미 있고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상위언어 각 영역 내에서도 한가지 과업만을 검사했다는 것도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위언어 각 영역 내에서도 다양한 수준의 과업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운자각 영역의 경우 본 연구에서 다룬 운율자각 외에도 음소자각, 음절자각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과업들은 난이도나 발달속

도뿐 아니라 문자언어 발달 등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여러 가지 상위언어 영역을 다루지 말고, 한가지 상위언어 영역 내에서 다양한 과업들을 포함하여 연구하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외국어 학습 경험과 상위언어 능력의 관계에 대한 역치가설이나 신역치가설을 검증하기에는 영어가 유창한 유아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영어 학습을 정기적으로 받고, 영어를 가장 많이 아는 집단3의 경우에도 이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역치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단순히 신역치가설의 타당성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에 그친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국제학교나

외국거주 유아등 영어에 능통한 유아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음운, 단어, 통사자각 등 상위언어 능력의 각 영역을 우리말로 척도화하여 여러 관련변인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상위언어 능력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 실제적 측면에서 초기 읽기를 지도하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상위언어 능력의 역할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읽기 지도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의 초기 외국어 학습에 관한 찬반논쟁에도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추후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상위언어 능력과 관련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공숙자(1995). 유아의 언어능력과 초언어능력간의 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경안(1981).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 연구 -음운발달 및 어휘발달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48집.
- 문수백, 변창진(1997). 교육 심리측정도구 K-ABC. 서울: 학지사.
- 윤혜경(1997). 아동의 한글읽기발달에 관한 연구 -자소-음소 대응규칙의 터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영석, 구학봉, 노명완, 김승훈, 차미정, 고승자(1993). 계몽학습준비도. 서울: 계몽사
- 이인섭(1986). 아동의 언어발달-한국 아동의 단계별 위상-. 서울: 개문사.
- 이정섭, 권경안, 정인실(1980). 한국아동의 어휘발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117집.
- Bialystock, E. (1988). Levels of bilingualism and levels of linguistic awar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560-7.
- Bialystock, E. (1986). Factors in the growth of linguistic awareness. *Child Development*, 57, 498-510.
- Bialystock, E., & Mitterer, J. (1987). Metalinguistic differences among three kinds of read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2), 147-53.
- Bowey, J. A. (1990). On rhyme, language and children's reading. *Applied Psycholinguistics*, 11, 439-48.
- Bowey, J. A. (1986). Syntactic awareness in relation to reading skill and ongoing reading comprehension monitor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1, 283-99.
- Bowey, J. A., & Patel, R. K. (1988). Metalinguistic

- ability and early reading achievement. *Applied Psycholinguistic*, 9, 367-83.
- Bryant, P. (1993). Phonological aspects of learning to read. In Roger, B.(Ed.), *Teaching Literacy: Balancing Perspectives*. London: Hodder & Stoughton.
- Chaney, C. (1992). Language development, metalinguistic skills, and print awareness in 3-year-old children. *Applied Psycholinguistics*, 13, 485-514.
- Chaney, C. (1994). Language development,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emergent literacy skills of 3-year-old children in relation to social class. *Applied Psycholinguistics*, 15, 371-94.
- Clark, E. V. (1978). Awareness of language: Some evidence from what children say and do. In A. Sinclair, R. J. Jarvella, & W. J. M. Levelt(Eds.), *The Child's Conception of Language*. NY: Springer-Verlag, 17-43.
- Cummins, J. (1984). Biligualism and cognitive functioning. In Shapson, S. & D' Oyley, V.(Eds.), *Bilingualism and Multicultural Education: Canadian Perspectives*. Clea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 Diaz, R. M., & Klinger, C. (1991). Towards an explanatory model. In E. Bialysock (Ed.), *Language Processing in Bilingual Childr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wards, D., & Christophersen, H. (1988). Bilingualism, literacy and meta-linguistic awareness in preschool children. *Brittisc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66, 31, 235-44.
- Ely, R., & McCabe, A. (1994). The language play of kindergarten children. *First Language*, 14, 19-35.
- Galambos, S. J., & Goldin-Meadow, S. (1990). The effects of learning two languages on level of metalinguistic awareness. *Cognition*, 34, 1-56.
- Gombert, J. E. (1992). *Metalinguistic Development*. Hemel Hempstead, Hertfordshire: Harvester Wheatsheaf.
- Goswami, U. (1994). Onset and rimes as functional units in readin. In Assink, E. M. H. (Ed.), *Literacy Acquisition and Social Context*. Hemel Hempstead, Hertfordshire: Harvester Wheatsheaf.
- Hakes, D. T. (1980). *The Development of Metalinguistic Abilities in Children*. Berlin: Springer-Verlag.
- Han, Y. M. (1996).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reading ability of the gifted children. Thesis of Oxford Brookes University.
- Hansen, J., & Bowey, J. (1994). Phonological analysis skills, verbal working memory, and reading ability in second-grade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 938-50.
- Ricciardelli, L. A. (1922). Bilingualism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reshold theory.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1(4), 301-16.
- Ricciardelli, L. A. (1993). Two components of metalinguistic awareness: Control of linguistic processing and analysis of linguistic knowledge. *Applied Psycholinguistics*, 14, 349-67.
- Smith, C. L., & Tager-Flusberg, T. (1982).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4, 449-68.
- Stanovich, K., Cunningham, A., & Feeman, D. (1984). Intelligence, cognitive skills, and early reading process. *Reading Research Quarterly*, 19, 278-265.
- Tunmer, W. E., & Bowey, J. A. (1984). Metalinguistic awareness and reading acquisition. In W. E.

- Tunmer, C. Pratt, & M. L. Herriman (Eds.), *Metalinguistic Awareness in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Implications*. Berlin: Springer-Verlag.
- Van Kleeck, A. (1982). The emergence of linguistic awareness: A cognitive framework. *Merrill Palmer Quarterly*, 28(2), 237-65.
- Vygotsky, L. (1962).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 Warren-Leubecker, A. & Carter, B. W. (1988). Reading and growth in metalinguistic awareness: Relations to socio-economic status and reading readiness skills. *Child Development*, 59, 728-42.
- Webster, A. (1986). *Deafness, Development, and Literacy*. London: Methuen.
- Yelland, G. W., Pollard, J., & Mercuri, A. (1993). The metalinguistic benefits of limited contact with a second language. *Applied Psycholinguistics*, 14, 423-44.